한국 '산신'과 비슷한 토속신앙 '낫'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㉓ 미얀마에도 산신각이 존재할까?

불교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잦은 방황으로 췌장염을 앓게 되셨다. 어린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고 병을 얻은 아버지가 많이 원망스러웠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한 후 친해진 스님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움을 토로했다. 가만히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스님은 "재희보살, 아버지를 원망하는 돌덩어리를 왜 가슴에 갖고 다니시오? 우리가 만난 것도 부처님 인연법인데, 아버지께서 그런 습관을 갖게 되신 것에도 인연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게나"라고 하셨다. 스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터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후부터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늘게 되었다. 산을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절에 갈 때마다 산신(山神)이 모셔져 있는 산신각(山神閣)에 가서 꼭 3배하라고 권유했다. 아버지께서 산신각에 자주 방문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매년 아버지를 위한 일년등을 달아드리고 있다.

그런데 불교에는 없던 산신이 어떻게 우리나라 절에 존재하게 된 것일까? 불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전래될 때, 기존에 있던 신앙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았다. 전래되는 나라에 맞게 불교는 기존의 신앙을 습합한 후 뿌리를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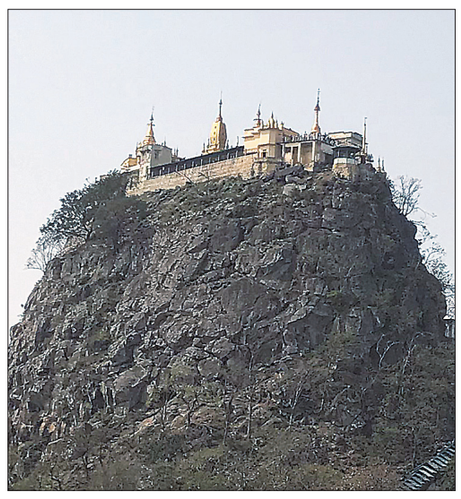
미얀마에는 우리나라의 산신각과 비슷한 '낫(Nat)' 신앙이 존재한다. 낫신앙은 미얀마에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 존재하던 자연, 조상, 영웅숭배와 결합된 토착신앙이자 민간신앙의 뿌리였다. 낫이라는 단어는 빨리어에서 보호자라는 의미를 지닌 나따(N?tha)에서 기원한다. 원래 낫은 땅, 하늘, 산, 계곡, 집에 깃든 정령들과 조상, 영웅 등의 영혼인 귀신을 모두 포함해서 수백가지의 종류가 있었다. 미얀마의 135개 소수민족들에게 공통적인 낫도 있지만, 민족의 특징을 담은 독특한 낫들도 존재한다.

보통 한국에서 모시는 신들은 인간을 이롭게 도와주기 때문에 모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얀마의 낫은 잘 모시지 않으면 원한을 품어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잘 경배해야 한다고 믿는다. 보통 낫으로 모셔지는 신들은 억울함을 품고 죽었거나, 원한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해 객사한 낫, 그네를 타다 죽은 낫, 출산을 하다 죽은 낫 등 현생에서 한(恨)을 품어 낫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낫을 잘 모시지 않아 노여움을 사게 되면 괴롭힘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낫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한 낫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 스님들 중에서는 낫의 존재를 따로 인정하지 않지만, 토속신앙으로 오랫동안 고착된 낫이기 때문에 불교 속에 포용해서 미얀마 사람들의 두려움을 덜어준다.



미얀마의 토속신앙인 '낫' 신은 한국의 산신과 흡사하다. 사진은 뽀빠산의 부처님과 '낫' 신.



뽀빠산 전경.



'낫' 신들의 다양한 모습.

미얀마 사람들은 선한 낫에게는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악한 낫에게는 원한을 내리지 말라고 기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낫들에게 음식, 과일, 물, 꽃, 돈을 공양한다. 또한, 자신의 집에 낫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한다. 낫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경전을 외운 물을 나뭇잎에 적셔서 집안의 방과 대문, 침대, 옷장, 등등 다양한 공간에 뿌린다. 혹은 가족들의 머리에 뿌려 주기도 한다. 미얀마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의 고난과 어려움을 낫의 소행이라고도 믿는다. 이럴 때 낫의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보석경(寶石經)〉을 독송한다.

낫은 미얀마에 상좌부 불교가 전래되기 전까지 수백가지, 수천가지가 넘어 정리가 되지 않았다. 또한 힌두교, 불교, 낫 신앙이 섞여 불분명한 종교로 혼합되어 가고 있었다. 바간 왕조를 세운 아노야타(Anawrahta)왕은 혼란스러운 사회를 정비하고자 상좌부불교를 바간으로 가져왔다. 하지만 낫신앙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다. 아노야타 왕은 기존의 낫들을 37가지 낫으로 정리하여 스님들과 함께 낫을 불교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여 상좌부불교와 자연스럽게 융화되게 하였다. 미얀마 불교 사원에 가면 부처님 옆을 지키고 있는 낫 수호신들을 발견할 수 있다.

원한 있는 '낫'이 상당수
잘 모시지 않으면 괴롭혀
고난의 이유로 여겨지기도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경전 외우며 물 뿌리기도

바간에서 약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 낫 신앙의 본거지인 뽀빠(Popa)산에 도착한다. 뽀빠는 산스크리트 단어에서 기원했으며 '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꽃이라는 의미는 뽀빠산의 전설에서 기원한다.

"아노야타는 자신의 신하에게 뽀빠산 정상에 매일 꽃 공양을 올릴 것을 명령했다. 신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매일 같이 산에 올랐다. 그러다가 뽀빠산의 여신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사랑에 빠진 신하는 뽀빠산의 여신과 아이를 낳았고 왕의 지시를 점점 따르지 않게 되었다.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몹시 화가 난 왕은 신하를 죽였고, 두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한 뒤 낫이 되었다.'

억울한 이들이 죽어 낫이 된 뽀빠산은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난 1518m 높이의 산이며 미얀마 37명의 낫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이 곳은 777개의 계단을 오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산을 오르다 보면 37명의 낫들의 사당과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뽀빠산에는 수 많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다. 뽀빠산에 오를 때는 특히 원숭이들이 공격을 하거나, 물건을 훔쳐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미얀마에는 '불교'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낫 신앙 이야기를 해주면 매우 놀란다. 미얀마에 부처님의 올바른 정법이 전해지기 전 비법(非法)을 전하던 승단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더더욱 놀란다. 자타카에는 인도의 상인들이 황금을 얻기 위해서 수완나부미(황금의 땅)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존재한다. 황금의 땅이 어디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미얀마 사람들은 수완나부미가 미얀마임을 확신한다. 미얀마에는 옥, 루비, 사파이어, 황금 등 많은 보석이 채굴된다. 또한 미얀마의 어느 동네를 방문하든 황금탑은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다. 과거부터 찬란한 불교 역사와 수 많은 황금탑으로 미얀마는 황금의 땅, 황금의 나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황금의 나라 미얀마에도 부처님의 올바른 법이 뿌리 내리기 전 삿된 무리가 불교를 이용하여 미얀마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 벵갈지방에서 미얀마로 변질된 밀교 계통의 승단이 들어왔다. 이 승단의 스님들을 아리(Ari)라고 일컬었다. 이들은 미얀마 사람들의 삶 속에 빠르고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 그들은 머리를 기른 상태로 절 안에서 거주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업과 죄를 소멸하기 위해 뱀을 숭배하고, 온갖 주문을 외워 백성들을 현혹시켰다. 또한 결혼한 부부들은 첫날밤을 가지기 전, 아리승들에게 자신의 부인을 바쳐야 하는 '순결의 꽃'이라는 의식을 치뤄야 했다. 아리승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백성들에게 쌀밥, 소고기, 술 공양물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아리승단의 교세가 강해졌을 때는 30명의 아리승들 아래 약 7만명의 신도들이 있었다. 아리승단은 아노야타왕의 상좌부불교 도입과 함께 자연스럽게 소멸하여 현재는 미얀마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얀마 사람들은 원한을 품은 낫들의 한을 달래며, 자신들의 재난과 재앙이 소멸되기를 기원한다. 낫 신앙의 영향 때문인지, 미얀마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한다. 아무리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타인들 앞에서는 절대 티내지 않는다. 불교는 미얀마에 전래되면서 정령신앙인 낫 신앙을 포용하고 바르지 못한 아리승단을 파사현정(破邪顯正, 나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했다. 미얀마 불교 속 낫신들을 만나고 싶다면, 코로나19 이후 꼭 뽀빠산으로 만나러 가길 바란다. 그리고 낫신들과 마주하며 지난 날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양곤대 박사과정〉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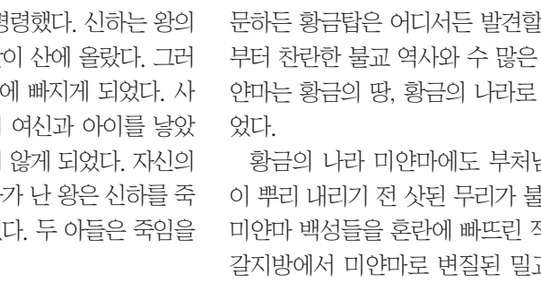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010-3267-1263